TEDTalks, Alessandra Orofino

It's our city. Let's fix it

00:13	세계 인구의 54%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1/3이 빈민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소비의 75%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배출의 80%가 도시에서 배출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기후변화나 에너지 위기, 빈곤과 같은 문제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시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나은 노력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을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해내지 못하고 있기에 도시 삶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 해 볼때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시민들의 자발적 민주제도 참여입니다. 둘째, 모든 거주민을 포용하는 도시의 능력이며 마지막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우리의 능력입니다.
01:38	참여에 대한 자료는 매우 명확합니다. 세계 투표 참가자 수는 80년 대 말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본적 없는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국가의 수준에서 나쁘다면 도시의 수준에서 그 수치는 형편 없을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통합된민주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는 전국 지방 자치 선거를 시행했어요. 프랑스의 유권자 참가수는 사상최저를 기록했고 거의 40%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수치는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의 몇몇 도시는 투표자 수가 5%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깐 덮어두기로 하죠,우리는 민주 도시의 95%의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한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만명의 시민이 사는 LA는 시장 선출에서 겨우 200,000 투표가 조금넘었습니다. 그것은 100년 동안 가장 낮은 투표자 수 였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살고있는 Rio에선지난 시장 선출 투표에서 의무선거제 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30%의 투표인구가 연례 투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집에 머물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03:18	포용성에 관해서 우리의 도시는 가장 좋은 성공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그 증거를 찾으려고 더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Rio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합니다. 여기는 Leblon입니다. Leblon은 Rio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Complexo do Alemao예요. 우리 도시의 가장 가난한 70,000명이 넘는 거주민이 삽니다. Leblon의 인간개발지수는 967입니다. 그 지수는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스웨덴보다 높습니다. Complexo do Alemao의 인간개발지수는 711이예요. 이수치는 알제리와 가봉의 인간개발지수의 중간정도 입니다. Rio는 남반구의 많은 도시들 처럼, 북유럽부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까지 30분만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차로 간다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04:28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것은 엄청난 부의 관계가 가능한 도시가 인간의 행복을 번창하게하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있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나 도시화의 정점에 달한 나라들은 진작에 우리를 행복하게하는 것을 멈춘것 처럼 보여집니다. 미국의 인구가 전반적인 행복지수의 감소로 인해 고통 받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요. 그리고 그 주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미국의 도시건설 방식은 수많은 미국 도시에서 양질의 공공 공간을 거의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교류가 감소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고독의 증가와 결속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정직함 그리고 사회와 시민의 참여에서요. 자 그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시를 가치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뭘까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 도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글쎄요, 저는 우리의 도시의 생김새를 바꾸려면 의사결정 절차를 바꾸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결과들을 준 이런 체제를요. 빠른 참여혁명이 필요합니다. 투표라는 발상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하는 하나의 활동에 불과합니다. 이건 더 이상 말이 안됩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몇 해 걸러 그저 권력화된 개인으로 대우 받는것이요. 다른 누군가에게 권력을 위임하기 위한 그 시간이 됐을때요.
06:37	만약, 2013년 6월 브라질을 휩쓴 시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것이 있다면? 매 번 선거구도의 밖에서 우리의 힘을 발휘하려할 때 마다 우리는 몽둥이 찜질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체포당했습니다. 이것은 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때, 대표 구조에 재참여 하는 것이며, 이것을 완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집단적 의사결정으로요. 의사결정은 굉장히 포괄적인 천성에 의해 불평등에 대응하며 우리의 도시를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07:37	폭넓은 참정권을 가능케 하는 것과 권력을 재분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기술은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있을 필요없이 집 단을 조직하고 논의하여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요 안타깝게도, 정부는 민주주의 절차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서,
08:03	기술의 완전한 가능성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도시의 정부는 시민들을 도시의 정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로 효과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움푹 패인 도로, 쓰러진 나무들, 부서진 전등들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미 결정된 사안의 결과물을 발전시키는 데에 그것보다는 적지만,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8살이었을 때 제 어머니가 8시까지는 자야하지만 분홍색과 파란색 잠옷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하신 것 처럼요. 그것은 참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는 참여를 가능케 하는데 기술을 잘 이용하지 못했어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요 예산할당 방향 토지점유 방향, 천연자원 관리 방법 이런 종류의 결정들이 우리 도시에서 징후를 보이는 세계 문제들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좋은 소식은

